• 1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②	2	①	3	③	4	①	5	③
6	①	7	⑤	8	⑤	9	③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①
21	④	22	③	23	②	24	④	25	①
26	③	27	②	28	④	29	④	30	⑤
31	③	32	⑤	33	③	34	④	35	④
36	②	37	③	38	②	39	⑤	40	②
41	①	42	①	43	②	44	④	45	④
46	②	47	⑤	48	④	49	①	50	⑤
51	①	52	③	53	②	54	③	55	①
56	③	57	②	58	①	59	②	60	②

해 설

1. 민화 전시회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조선시대 민화전!'…… 민화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전시회에 와 보기는 처음이야.

남 :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여 : 어! 이 그림 좀 봐. 정면에서 보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보고 그린 것 같기도 해.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남 : 피카소 같은 입체파 화가들의 그림도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았어. 물론 민화와는 생각의 뿌리가 다르지만.

여 : 맞아!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에서도 정면과 측면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던 거 같아.

남 : 정면과 측면, 오른쪽 측면과 왼쪽 측면, 이렇게 다양한 시점이 혼재하는 것이 바로 민화의 양식적 특징 중 하나인 '다시점' 기법이라는 거야. 그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특정한 시점이 나타나는 것을 일시점이라 한다면, 이렇게 시점을 자유롭게 이동해 가는 것을 다시점이라고 하지.

여 : 그런데 오빠, 저기 두 번째 그림 좀 봐. 그림 속 어떤 대상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어. 전문 화가의 그림이 아니어서 그런가?

남 : 좋은 지적이야. 민화는 네가 말한 것처럼 한 화면 속에서 사물들의 실제적인 크기와 비례 관계가 종종 무시되었는데, 그건 꼭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야.

여 : 그럼 왜 그런 건데?

남 : 민화는 원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정해지곤 했거든. 그림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상을 유달리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렸던 거지. 그래서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당시 민중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

여 : 야! 미대생이라 다르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나 봐.

1.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대화에서 오빠는 민화의 특징으로 '다시점 기법'과 '상호비례관계 무시'를 들고 있다. ㉠은 다시점 기법이 나타나 있고, ㉣은 사물의 비례관계가 무시되어 있다.

2. 이번에는 라디오 교양 강좌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요정들을 기억하세요? 요정이라면 대부분 나비 날개를 가진 손바닥만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정은 인간의 키만한 것에서 개미처럼 작은 것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용모 또한 매혹적인 모습에서 추악한 괴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입니다. 대체로 요정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 해 특별한 날에만 마을 근처로 나온다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 장미꽃잎 등으로 만든 약을 눈꺼풀에 바르고 네잎 클로버를 머리에 얹으면 이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하는 이야기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웃을 때 그 웃음이 가루처럼 부서져 깡충거리고 나가서 요정이 생겨났다고도 하지요.

여러분은 요정을 믿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요정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요정을 이야기에나 나오는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한가요? 우리의 어린 시절이 꿈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요정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요정을 다시 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요정 팅커 벨이 피터 팬 대신 후크 선장이 몰래 넣은 독약을 먹고 죽어가자 피터 팬이 갑자기 외치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군요?

"여러분은 요정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는다면 모두 손뼉을 쳐서 팅커 벨이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동 박수]

2. [출제의도]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 다른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화 속 요정을 화제로 제시해,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삭막한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꿈을 회복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권하고 있다. ①은 마음속에 꿈을 지님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노래 가사이다.

3. 이번에는 과학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남) : '나노'는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나노기술'은 이와 같이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과학기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노기술은 21세기의 첨단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상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어 왔던 작은 세상의 재발견인 셈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노 현상 중에서 연꽃잎이 감추고 있는 티끌처럼 작은 세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레이터(여) : 아침 이슬이 연꽃잎에 청아하게 맺혀 있습니다. 연꽃잎이 다른 나뭇잎과 달리 물에 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이 물에 젖느냐 아니냐는 친수성과 소수성, 즉 물체가 물과 친하냐 혹은 아니냐 하는 성질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처럼 연꽃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표면이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나노 세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연꽃잎 표면을 육안으로 보면 다른 잎들보다 훨씬 매끄럽게 보이지만, 원자현미경을 이용해 나노 스케일을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확대시키면 티끌만큼이나 작은 돌기들로 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노 크기의 미세한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수성은 정도가 더 심하다는 뜻으로 '초소수성'이라고 합니다.

나노 크기의 돌기로 덮여 있는 연꽃잎의 초소수성 표면에서 미세한 돌기보다 100만 배 이상 큰 물방울은 공 모양이 됨으로써 표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이처럼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지면 표면 위에서 물방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지요.

넓은 연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잎 위에 있던 물방울은 모이고 합쳐져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때 물방울이 잎에 얇은 먼지나 티끌을 머금고 함께 떨어져서 연꽃잎은 항상 청아한 녹색 자태를 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꽃잎이 가진 이러한 특징을 '연꽃잎 효과'라고 합니다.

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내레이터는 물방울이 맺혀도 젖지 않는 연꽃잎의 청아한 모습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나노 스케일 돌기를 보여 주면서(㉠), 초소수성 표면에서 물방울이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꽃잎 표면에서 먼지를 머금고 굴러 떨어지는 물방울의 모습(㉣)을 통해 '연꽃잎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4. 이번에는 어떤 드라마 작가의 강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신인 작가가 청춘남녀의 방황이 테마라고 하면서 원고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는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만을 그려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시종일관 우울과 허무주의, 냉소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A4용지로 1백 장 가까운 분량이었지만 대사와 행동을 통한 의미 전달에는 실패했다고 보이더군요. 그 신인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상당히 공을 들였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재를 요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리로 치자면 너무 짜거나 매워서 먹을 수 없게 된 요리인 셈이죠. 맛있는 요리는 특정한 한 가지 맛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운탕이 맵기만 해서는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우러나온 국물 속에서 매운탕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드라마도 마찬가집니다. 가령 하나같이 착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보기 좋은 일들만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몇 회에 걸쳐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객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착한 인물이 착한 일을 할 때보다는 못된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착한 일을 하면 더 호기심을 갖게 되죠. 반대로 세상의 고통에 너무나도 시달리던 착한 인물이 한순간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그 처지를 동정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드라마는 다양한 색깔을 알맞게 배분해야 하는 색동저고리와도 비슷합니다. 붉은 색이나 파란 색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저고리는 이미 색동저고리라고 볼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 편의 좋은 드라마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소재가 지닌 독특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색깔들이 조화롭게 섞이는 과정이 바로 깊은 감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4.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드라마의 소재를 매운탕과 색동저고리에 비유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모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5~6. 이번에는 '윈도우 효과'에 대한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오늘날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 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예술대학 유채린 교수님을 모시고 영상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요즘 영상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할 때 '윈도우 효과'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 : 예, 윈도우 효과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화 상품이 창조된 후, 부분적인 기술 변화를 거쳐 문화 산업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가치가 눈덩이 불어나듯 증대되는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다시 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 : 예, 영화는 먼저 극장에서 상영되면서 최초의 이익을 내는데, 그 영화가 비디오나 방송 같은 분야에서 다시 상품으로 활용되면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미국의 영화 산업은 극장 입장 수입만으로 95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여기에 해외 배급 수입과 기타 윈도우 효과에 의한 가치 창출액까지 더해져서 총 475억 달러 가량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극장 상영 이후 무려 네 배나 되는 수입을 윈도우 효과에 의해 벌어들인 셈이죠.

진행자 : 아! 대단하군요. 그럼 요즘 각광받고 있는 캐릭터 산업도 마찬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교수 : 예, 그렇지요. 기존의 비디오 제작이나 TV 방영 외에 영화 주인공을 이용한 캐릭터 사업 또한 엄청난 수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해리 포터'도 제작비는 1억 6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영화 수입 외에 세계적인 음료회사로부터 이 영화 캐릭터를 단독 사용하는 대가로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고, 관련 상품 개발업체도 90곳이나 된다고 하지요.

진행자 :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잘 만든 한 편의 영화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지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영상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 : 우리의 영상 산업은 경제적 가치에 이제 막 눈을 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음마 단계인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최근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윈도우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출제의도]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여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 모두 영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범주가 일치하지만, ②의 경우 영화 자체의 흥행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까지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킨 사례로 볼 수 없다.

6.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진행자의 발언 중에서는 개인적 경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7. [　　] 장면을 보고 연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생을 폭포와 강물의 모습에서 유추하여 연상할 때, ⑤와 같이 폭포의 물줄기가 다시 강물로 합쳐져 흐르는 모습에서 인생이 성찰을 통해 완성된다고 파악하는 것은 상호 관련성이 없어 적절하지 못하다.

8. [출제의도] 주제에 따른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주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에 제시된 해결 방안 중 '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성취'는 개인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답풀이] ① '노인복지정책의 부실'은 정부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③ '향후 연령별 노동자수 예상 자료'는 기업 경영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9. [출제의도] 개요를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Ⅱ-1'은 동아리 활동의 의의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③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 학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주제에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④ Ⅱ-2-가-(2)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동아리 활동에 미진한 원인이고, Ⅱ-2-나-(2)는 학교의 관점에서 동아리 활동이 미진한 원인이다. ⑤ 너무 포괄적이므로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④는 서두에서 속담을 활용하여 일탈 행위로 탄압을 받은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한때 일탈로 탄압받던 박지원의 글이 훌륭한 창조적 행위로 평가받는 점을 들어 일탈 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속담 활용과, 구체적 사례가 없다. ② 구체적 사례가 없다. ③ 새로운 관점이 나오지 않았다. ⑤새로운 관점이 나오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사고 과정에 따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⑤에 제시된 예화는 '인생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라는 의미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코끼리 그림과 독자들의 상황을 연결시킴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교훈을 주려는 어조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에'는 부사격 조사로서 대상의 움직임이 없는 것에는 '-에'를, 대상의 움직임이 있는 것에는 '-에게'를 사용한다.
[오답풀이] ①가파르다는 '르불규칙 용언'이기에 '가파르다, 가파르고, 가파르며, 가팔라서'로 활용을 한다. '가파라서'는 '으'가 탈락한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경우이다. ④'살찌다'는 동사이며, '살지다'는 형용사이다. ㉣에서는 생선이 살이 올라 먹음직스럽다는 의미로 쓰였기에 '살진'이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타박'과 ③의 '타박'은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서로 다르지 않다.

14. [출제의도] 국어의 문장 표현과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ㅂ에서 '공부하다'란 동사와 같이 '체언+-하다'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공부하다, 추천하다 등), 이를 부정할 때에는 '안 공부하다'보다는 '공부 안 하다'와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다.

[15-18] 고전소설

15. [출제의도] 소설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옥영은 자신에 닥친 고난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여 극복하기 보다는 꿈속에서 초월적 존재인 장육금불의 만나 용기를 얻어 극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옥영은 해적들을 만난 후에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자포자기에 빠지고 있다. ④ 사랑으로 설득하는 몽선 부부의 말을 듣고 옥영은 자살하려는 마음을 바꾸고 있다.

16. [출제의도] 일어날 사건의 전개 양상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 옥영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조선에 가려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배를 타고 조선에 가서 가족과 상봉하지 못했다면 옥영의 허무함이나 안타까운 심정이 부각될 것이다. 새로운 갈등 관계를 예고하거나 흥미유발과는 거리가 있다.

17. [출제의도] 서로 다른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문제이다.
'홍도전'에서 나오는 어머니와 며느리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격은 '최척전'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홍도전에 비해 최척전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⑤ '장육금불'이란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 구조자 나타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18. [출제의도] 인물들의 대화에서 드러난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옥영은 섬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부정적인 면에 맞추어 말하고 있는데 비해, 몽선은 섬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낙관적인 면에 맞추어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몽선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기보다는 사태를 낙관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다. ② 옥영은 현실 상황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몽선은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말하고 있다. ⑤ 옥영이나 몽선은 각각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19-22] 예술

19. [출제의도] 내용을 토대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문단에서 시나위는 즉흥곡이라고 하지만, 초보자는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20.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문단의 악보로 정리된 시나위를 연주하는 것은 시나위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표현과 3문단의 곡의 일정한 틀은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ㄷ'과 'ㄹ'은 즉흥성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ㄱ'과 'ㄴ.'는 각각 3문단과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21. [출제의도] 독자가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 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속악의 특징인 즉흥성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연주자가 연주분위기에 몰입해 그때그때의 감흥을 자신의 음악성과 기량을 발휘해 연주하는 것이므로 <보기>의 마지막에 가야금 명인이 할 말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어구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박제된'은 문맥 속에서 시나위의 본래의 특성이 사라져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 역시 음식 재료 본래의 맛이 사라져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마음이나 의식 속에서 잊혀 지다, ②는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 ④는 불이 꺼지다. 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3-26] 인문

23. [출제의도] 문단의 특징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문단 (나)는 융이 기존의 연구 방법에 추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화제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 기존의 연구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았다.

24. [출제의도] 지문과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심화된 사고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고흐가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기억과 관련한 그의 콤플렉스를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하여 자기만의 것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고흐의 그림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오답풀이] ⑤ 고흐의 콤플렉스에는 '형', '아버지' 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니 해당 단어에 대한 반응이 달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주어진 사실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도표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융이 단어 연상법을 통해 밝힌 것은 특정 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이다. 그러니 응답 시간과 단어가 그래프에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양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 단어에 대한 응답 시간의 차이에 따른 것이니, 응답 시간이 되겠다. Ⓑ에는 단어 연상법에 따라 제시되는 단어가 나와야 하겠다.

26. [출제의도] 주어진 어휘에 해당하는 한자 어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의 '따진다'는 '판별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정도가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다.

[27-30] 과학

27. [출제의도] 글쓴이의 관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글쓴이는 2문단에서 인간은 아직도 진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마치 진화 과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 부정하며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베아복제연구를 허용했다는 기사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28.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사례임을 아는지 평가하고 있다.
㉠은 결국 유성생식의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거추장스럽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는 유성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암수가 짝을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포식자에게 죽을 수도 있는 비용을 치르면서도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공작이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유성생식의 과정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집단생활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⑤유성생식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29. [출제의도] 제시된 구절의 이면에 담긴 의미들을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은 앞뒤를 통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대답은 마치 인간이 진화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예측을 부정하는 것이며 인간은 아주 우연한 조건에 의해 탄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답은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어느 한 순간 사라졌듯이 인간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글쓴이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30. [출제의도] 어휘가 지니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로 1.간과, 3.통제　　세로 1.간주, 2.불과, 4.제어
ⓔ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 놓음' ⓕ는 '간단 명료'

[31-35] 현대시

31. [출제의도] 각 시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나)에서는 '충분히 흔들리자 ……', '이 세상 어디서나 ……', 영원한 눈물이란 ……' 등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고, (다)에서는 '슬픔의 …… ~라'라는 구조가 반복 사용되어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시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수'는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엿보게 하는 방법'으로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의 '기도'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미로, 내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3. [출제의도] 시를 바꿔 씀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A]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기>의 시에 비해 '금실 은실 청홍실', '정갈한 자

갈돌의 강변' 등의 시각적 이미지와 '가슴속 아우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 즉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34. [ ] 시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에서는 부정적인 사물을 긍정적인 도구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역설적 표현과 발상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의 경우도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 같은 표현과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소재를 시로 형상화하는 과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보기>의 이야기에서 '의사가 되려는 김 양의 소망'은 시에서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중 '뿌리 깊은 벌판'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6-42] 수필 · 고전시가

36. [출제의도]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나)와 달리 (다)에는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함께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도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③ (가)와 (다)는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았다. ④ (다)의 경우도 화자가 실제로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나)에서도 효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다.

37. [출제의도] 수필 작품을 읽고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호소력을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비유를 통해 모성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와 대조는 이 지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④ 2문단, 3문단, 6문단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⑤ '망아적 애정', '피난소', '동감자', '신빙' 등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를 사용하였고, '까닭이올시다', '터이지요' 등의 어투를 통해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38. [출제의도] 고전 시가를 읽고 그 내용 및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어머니를 예찬하는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답풀이] ③ '호미'는 어머니, '낫'은 아버지, '날'은 부모(부모의 사랑)를 뜻하는 말이다. ④ 호미와 낫이 농기구라는 점에서 작자가 농민 계층일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호미와 낫의 '날'이 지닌 예리함의 차이를 통해 부모의 사랑의 정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39. [출제의도] 두 시에 나타난 시적 상황을 대비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다)의 시적 화자는 헤어져 있는 어머니를 간절히 그리는 오매불망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보기>의 시적 화자는 고향(강릉)의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다시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생활의 현장(서울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읊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상황과 이후로 더욱 깊어진 그리움의 정서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은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모정(母情)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②에서도 '바릿밥(여기서는 따뜻한 밥을 의미함)'과 두둑한 옷은 자식에게 주고 자신은 찬 밥과 엷은 옷을 입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식을 위한 희생적 · 헌신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흐름으로 보아 생략된 어구를 추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앞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피, 정신, 전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어머니가 곧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준 존재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비유적 표현은 '뿌리'이다.

42. [출제의도] 관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①의 '손이 닿다'는, '손'과 '닿다(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맞붙어 사이에 빈틈이 없게 되다.)'의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용어의 조건인 '제 3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의미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3-47] 사회

43.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4문단에는 앞으로의 세계가 남북격차에 디지털 격차가 겹쳐짐으로써 부정적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마치 남북격차가 디지털 노마드 증가의 원인처럼 제시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핵심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4문단에는 신유목 시대에 국가주의가 퇴조하고 세계시민주의 확대될 것을 예상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신유목 시대의 주류인 디지털 노마드가 세계시민주의적 성향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유목민이 국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 [출제의도] 글쓴이의 관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사이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정체성 상실의 문제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글쓴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사이버 세계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린다. 즉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6.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은 인터넷을 통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하여 자본이나 노동력을 이동하는 새로운 인간형이다. 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본을 이동한 경우이며, ㄷ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노동력을 이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디지털 노마드의 사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ㄱ의 경우는 전통적 의미의 육체 노동 형태에 해당한다. ③ 유비쿼터스 환경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47. [출제의도] 제시된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 한자성어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은 디지털 노마드로의 변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이다. 가난한 유랑민이 되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는 남부여대(男負女戴)이다.

[48-51] 기술

48. [출제의도] 정보의 사실적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 이다.

첫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의 연도에 따르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종대의 갑인자보다 시기가 늦다. 또, 다섯째 문단에 따르면 당시의 유럽에 금속활자 기술이 전무했다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다섯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의 갑인자 이전에 금속활자 기술이 있었다고 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9. [출제의도]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 따르면 활자기는 주조기를 통해 제작되며 주조기의 모형은 볼록하게 돋을새김이 된 펀치로 만들어진다. 또 넷째 문단에 따르면 프레스는 활판의 전면에 균일한 압력을 동시에 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활판은 오목 활판이나 평면 활판이 아닌 볼록 활판이어야 하며, 프레스는 단번에 내리 찍는 유형의 프레스여야 한다.

50.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적절하게 끌어낼 줄 아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불과 10년 동안에 완성되고 우리나라의 인쇄술이 200년 이상 먼저 시도되었다는 진술이 다섯째 문단에 있으나 그것이 ③에서처럼 구텐베르크의 외래 기술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1. [출제의도] 문맥에 어울리는 비유적 표현을 찾을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①의 '찻잔 속의 태풍'은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 사건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좁은 범위에 머무르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52-56] 현대소설

52. [출제의도] 소설의 요소에 따라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첫 번째 (중략) 이후 부분을 주목하면, 새댁은 시어머니인 화산댁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산댁도 새댁이 자신의 며느리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4년 동안 막내 며느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댁이 남편의 아명(兒名)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집을 나서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건대 새댁은 화산댁을 마치 낯선 노인 대하듯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인물의 행위와 의도를 추리하여 접근했지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의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④ 할머니 앞에서 꿀밤 떡(도토리 묵)을 거부하는 손녀의 행위는 음식을 애써 준비해 온 화산댁에게 심적인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53.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화산댁은 복술이가 안내해 준 그 집이 정말 아들네 집인지 알 수가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밖에서 처다본 집의 겉모습도 불안감을 한층 고조시켜 준다. 새댁이 막내아들의 아이 시절의 이름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순간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낯설고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그 집이 최소한 아들네 집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의 이면에는 낯선 집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고, 아들네 집은 이 집보다는 친숙한 곳이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각의 흐름을 추리한 것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54. [출제 의도] 인물의 성격과 유형의 파악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화산댁은 잠을 청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고갯길을 넘고 있는데 이는 아들네 집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도시적인 공간에 대한 거북스러움(편하지 않음)도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두고 <후조>에서 생활 터전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구칠'이와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5. [출제 의도] 행위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아들은 빗속을 뚫고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를 데면데면 대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묵을 마련해 온 어머니의 성의도 무시하고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 이런 점을 보면 아들은 어머니의 정을 외면해 버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태도는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는 말에 의해 간접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매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6. [출제 의도] 단어의 의미 이해와 그 구조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어근 뒤에 어떤 말이 붙되, 앞말(어근)이 '속되다'는 뜻을 더해주는 접미사가 붙은 단어를 고르면 된다. '귀때기'는 귀를 속되게 이르는 말(때기)이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57-60] 언어

57. [출제의도] 본문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은 컴퓨터라는 새로운 매체가 필기도구로 등장함으로써 생겨난 표기법 혼란의 현상을 제시한 후, 그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인터넷 글쓰기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빨리 입력하고 바로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 때문에 전통적인 표기법에 혼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58. [출제의도] 본문과 <보기>의 관점을 파악한 뒤, 본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비유적 표현을 고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편리함을 추구하며 규범을 파괴하고 있는 오늘날의 표기 문화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규범에 맞는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글쓴이는 ㉠에 대해 '편리함을 위해서 규범을 어기는 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다.

59. [출제의도] 본문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의 [A]에서는 인터넷 글쓰기의 특성 때문에 표기 방식이 간소화되어 규범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수비'가 점차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두 자료가 주는 정보를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는 ②가 알맞다.

60. [출제의도] 주어진 부분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예를 고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끊어적기를 하지 않고 이어적기를 택했다면, '반드시'와 '반듯이'는 같은 표기 형태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②는 끊어적기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된다.

[오답풀이] ①과 ④는 음소 단위로 풀어쓰기보다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③우리 국어가 띄어쓰기를 통해 거두고 있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끊어적기가 쓰기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